

KLSI

독일과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 유통, 호텔, 음식업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2014.2.8.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독일과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 유통, 호텔, 음식업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독일과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현황

□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 2011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 중 독일(22.13%)과 네덜란드(37.18%)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편이며, OECD 평균(16.5%)보다 거의 2-3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약 13.5% 정도임. 이런 이유로 독일(1,419시간)과 네덜란드(1,377)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OECD 평균(1,749)보다도 적은 상황임.

OECD: 전체 고용에서 시간제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

	2000	2011
• 네덜란드	32,14 %	37,18 %
• 독일	17,58	22,13
• 스웨덴	14,04	13,83
• 영국	22,98	24,59
• 일본	17,72	20,57
• 미국	12,64	12,60
• 한국	7,02	13,50
• OECD 전체	11,88 %	16,55 %

OECD: 실노동시간
(취업인구1인당 연간 실노동시간)

	2000	2010
• 네덜란드	1435	1377
• 독일	1473	1419
• 스웨덴	1642	1624
• 영국	1700	1647
• 일본	1821	1733
• 미국	1836	1778
• 한국	2512	2193
• OECD 전체	1818	1749

2. 독일 서비스업과 시간제 일자리 현황

□ 독일 서비스업 일반적인 현황

- 지난 10년 사이 독일 서비스업(3차 산업) 증가 추세는 제조업(2.7%)의 2배(6.6%)인데, 소매업은 제조업의 4-5배(10.2%) 정도 되고 있음. 이처럼 독일에서도 서비스산업과 소매업의 증가 추세는 매우 높은 상황이며, 소매업의 시간제 일자리도 증가

[표] 독일 산업 현황 추이 : 1996-2009

독일노동시장	1996년	2009년	증감률
1차산업	13.00%	16.20%	▲3.20%
2차산업	8.50%	11.20%	▲2.70%
3차산업	18.40%	25%	▲6.60%
음식숙박소매	16.80%	27%	▲10.20%

- 독일 소매업의 노동조건은 저소득층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는 것이며, 특히 비전형적 근로자 중 저소득층 비율(84%)이 매우 높은 상황임. 독일 내에서 유통업의 60%는 저임금[13.4% 정규직, 비정규직 86.4%]이며, 호텔업의 75%가 저임금[51.6% 정규직, 비정규직 48.4%]임.

1) 독일 서비스업 - 음식숙박업 시간제 일자리 현황

□ 독일 음식숙박업 현황

- 2013년 기준으로 음식업 및 숙박업 현황은 작은 식당부터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힐튼 호텔 등 사업체 23만개에 약 종사자가 약 196만명이 종사하고 있음.
- 독일 수도 베를린에는 음식업(15,500개, 식당 14,800개), 숙박업(호텔 778개, 12만6천개 배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약 5만명 정도는 정규직(사회보험 적용)이고, 그 밖의 2만5천명 정도는 비정규직(사회보험 미적용자, 5천명 수습직/인턴직)임.
- 독일 숙박업(호텔)은 이원적 조직 체계(사업장/직업학교 : 듀얼 시스템)로, 원칙적으로 직업 교육(3년제)을 수료한 사람이 호텔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호텔 노동조건은 통합서비스노동조합(베르디)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고 있음. 독일의 숙박업과 음식업 비정규직(계약직)은 통상 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음.
- 독일 서비스업 풀타임 정규직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 노동(주5일)이며, 연차휴가는 25일-30일 사용 가능한 상황임. 서비스업 종사자도 휴가 갈 경우 에도 휴가비를 지급(크리스마스 휴가 보너스)

스)하고 있고, 연금도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받고 있음.

□ 독일 음식숙박업 주요 노사관계 쟁점

-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문제는 고용시간별, 숙련별(자격), 지역별 임금 격차 문제로 사회적차원과 노사관계차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임.
- 첫째,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독일 내에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임. 또한 노사간 맺은 산별협약을 모든 사업체가 협약을 지키고 있지는 않다는 것임. 예를 들어 맥도날드, 버거킹, 거대 호텔(체인점) 등은 임금 협약은 지키고 있으나, 작은 소규모 사업체는 협약을 지키지 않아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는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사간 상급단체에 각기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약을 그대로 모든 사업체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것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풀타임-파트타임) 및 노동조건을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임.
- 둘째, 독일 서비스업에서 정규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숙박(호텔) 및 음식업 종사자들이 일부 있는데, 이들은 노사간 산별 협약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다만, 호텔업에서는 정규 직업 교육을 받은 종사자는 산별협약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예를 들면 독일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직업교육훈련자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음. 또한 음식숙박업의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 근무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저숙 교육 받은 사람들도 타 직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 가족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인식. 사람

이 없다면 최근 몇 년 임금은 높아지고 있는 수준.

- 또한 독일 서비스업 내 파견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이 1,397 유로 정도인데, 호텔 관련 학교를 수료(대학)할 경우 약 4,530 유로 정도 받고 있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2,324 유로 수준 임.
- 셋째, 독일 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 문제는 미니잡보다도 낮은 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 '슈바르츠 아르바이트' (블랙 노동/ 어두운 음지의 노동자)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임. 2012년 기준으로 약 8.68 유로의 저임금 보조업무 종사자로 월 1,429 유로 정도 받고 있음>(* 독일 전문직 시급 11.22 유로 , 월 1,848유로)
- 또한 독일 내 서비스업에서 내 시간제 일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예를 들면 헤센/베를린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간급이 높으나, 동독 지역 낮은 임금 수준을 받고 있음. 독일 서독 지역 월 평균 임금(2,805 유로)과 동독 지역 월 평균 임금(2,000 유로)은 약 800유로 차이가 나고 있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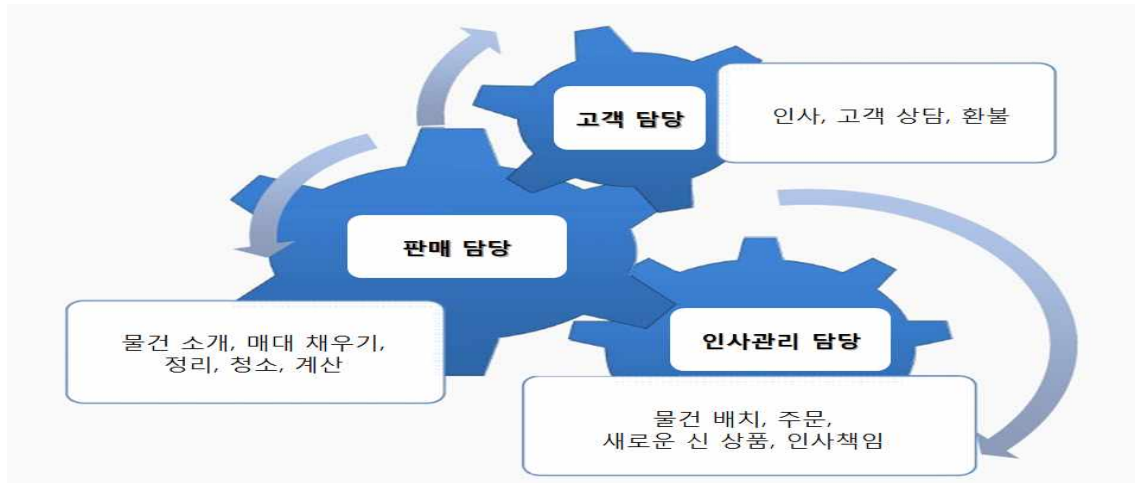
2) 독일 서비스업 - 소매업 시간제 일자리 현황

□ 독일 소매업 고용 현황

- 독일 소매업 고용구분은 핵심(전형근로자) 업무는 풀타임(전형근로자 : 안정적 임금, 1일 7시간-8시간 근로)과 파트타임으로 구분되어 고용되어 있음. 비핵심업무(비전형근로자)는 기간제 계약직과 미니잡 등으로 고용하고 있음.

1) 독일 브란덴부르크 지역 계속 20%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서, 향후 5년간 동일 임금 수준으로 따라 잡도록 노사간 협상하고 있음.

- 독일 소매업에 상대적으로 미니잡 종사자가 많고, 1개월에 약 450유로(1주일 10시간-12시간) 정도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음. 미니잡 종사자의 의료보험과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21%, 5가지 사회보장제)하고 있으며, 독일 내 학생 계층에 미니잡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나, 부수적 직업으로 머물게 하는 상황임.
- 독일 소매업 내 작업과정은 핵심과 비핵심 직군으로 구분되어 있고, 성별에 따라 작업과정이 분리된 측면이 있음. 독일 유통업 작업 분포는 ‘관리 - 소비(고객) - 판매’ 3 영역으로 되어 있음.



- (1) 관리직 : 물건 진열, 상품 주문, 인사담당[전자제품 판매는 남성 정규직]
- (2) 판매직 : 상품진열 업무, 판매 채우는 일, 정리, 청소, 계산
- (3) 고객상담직 : 인사, 고객상담, 불평불만

- 독일 유통업은 예전에는 적은 인원이 모든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했으나, 소매업이 대형화대면서 업무 분화(분절)가 되고 있음. 독일 유통업에서 미니잡 고용(슈퍼체인 리들)이 많음. 이는 독일의 보수주의 성향(여성 아이 돌보는 상황으로 미니잡 선택)에 기인된 측면도 있음.

- 독일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나, 미니잡으

로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있음.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미니잡으로 채용되고, 가장 주변적인 일(매대, 청소,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독일에서 미니잡이 매력적인 이유는 사회보험료(면세점 기준 450유로)를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임.

□ 독일 소매업의 고용 및 시간제 변화(1995년-2012년)

- 독일 소매업에서 2012년 기준으로 정규직은 감소 추세이며,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이 증가 추세(3분의 1차지)임. 실제로 독일 유통업 풀타임 정규직은 17만에서 12만명(76.1%)으로 감소했고, 파트타임 정규직은 6천명에서 8천명(134.8%) 정도 증가함.
- 독일 소매업에서 미니잡은 2가지 형태(2003년 -2012년)인데, 오직 미니잡(450유로)으로 일하는 사람과 2개의 미니잡(독일 학생, 대학생 등)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며, 미니잡으로 두 잡을 하는 사람이 2배 증가하고 있음. 특히, 파트타임 잡 하는 사람들이 두잡 선택 선호 높음. 미니잡은 학생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로 선호되고 있고, 더 돈을 필요로 하거나 연금생활자들이 선호도 많음.

[표] 독일 소매업 미니잡 변화 추이 : 2003년 - 2012년(증감률)

2003년	2012년	비교
100	233.5	[2개의 미니잡 생활자 : 선호도 2배 이상 증가]
100	100.1	[1개의 미니잡 생활자 : 수요 더 이상 없음]

- 독일 소매업은 교육훈련 연수생들이 2,3차 지원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젊은 층들이 저소득 직종으로 꺼려하는 상황이기에, 큰 거대 기업들이 회사에서 홍보 선전하고 있을 정도임.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임.

3. 네덜란드 고용 및 시간제 일자리 현황

□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 네덜란드 취업자의 약 1/3 시간제 일자리 노동이며, 이 중 약 10% 정도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 2012년 기준으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증가가 높는데, 이는 시간제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임.

[표] 네덜란드 고용 및 시간제 비중 변화 : 2001-2012

	2001년	2012년	증감율
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	76%	69%	7%
비정규직(기간제 + 임시직)	12%	16%	4%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8%	10%	2%

- 네덜란드 2012년 기준으로 1주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하여 25시간 미만 자 중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720만명이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110만명(1/3 호출근로)임.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돌봄과 소매업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는 기간제 혹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네덜란드 노동시장은 2005-2008년 실업률 3% 미만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2008-2013년 실업률 8.5%(2013년 10월 9%, 청년 18%)로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유럽에서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여성 파트타임 높은(75%)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네덜란드 노동시장 특징 중 비정규직 고용 1년 내 정규직으로의 이동 비율이 약 25%-30%(파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길어지고 있음) 정도 되고 있음. 네덜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나, 서비스업의 약 70%는 저임금 업종에 분포되어 있음.

- 다만,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는 사회복지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예를 들면 노동시장 비례제도 원칙(다면, 연금은 시간에 비례하여 받음). 제로 아워(단시간 호출노동) 형태의 초단기 시간제 일자리 증가로 현재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음.

□ 네덜란드 서비스업 및 시간제 일자리 현황

- 네덜란드 소매업 중 대형할인점 형태의 슈퍼마켓에는 약 26만명(4만 4천개 상점 존재)이 종사하고 있음. 네덜란드 슈퍼마켓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종사자 23%, 35-20시간 종사자 19%, 20-12시간 종사자 11% 정도임. 예를들면 네덜란드 소매업 중 대형 할인점 체인 ‘점보’의 경우 종사자 30명 중 15명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정규직이며, 나머지 15명은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임.
- 네덜란드의 소매업 종사자의 임금 또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이며, 법정최저임금 수준(2013년 네덜란드 최저임금 약 15,000원 / 8.6유로)인데,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23세까지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며, 15세는 최저임금의 약 30%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슈퍼마켓에서 23세 이상 종사자는 8.6유로를 받고 있음.

직업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네덜란드, 2010)

Permanent contracts		Temporary contracts	
Armed Forces	24.61	Armed Forces	19.76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22.46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14.68
Science professionals	19.58	Science professionals	1.83
Technicians and	17.25	Technicians and	10.46
Clerks	29.13	Clerks	9.54
Service and sales	21.58	Service and sales	14.95
Skilled agricult	34.09	Skilled agricult	19.23
Crafts and trade	23.24	Crafts and trade	-6.48
Plant and Machinery	24.85	Plant and Machinery	2.32
Elementary Occupations	45.76	Elementary Occupations	10.40
All	25.13	All	9.50

EU SILC 2010, own calculations

Visit Korean delegation: 22 November 2013

- 네덜란드 성별 임금 차이(격차)는 약 24%(2007년, 2010년 18%) 정도이며, 2011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업종별로보면 유통 27%에서 8%, 호텔 17%에서 2%로 줄어 들고 있음. 2010년 네덜란드 직업에서 남여간 임금 격차는 서비스 판매직 비정규직 14.9%, 정규직 21.5% 였음.
-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매업(서비스 판매직)의 남성과 여성이 임금격차가 존재함. 예를 들면 정규직 서비스판매직의 성별 임금 격차는 21.5% 정도인데, 비정규직 서비스판매직의 성별 임금격차는 14.9%임. 이와 같은 임금격차는 서비스직의 성별 분절 현상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임.